

광주 출생아, 17세까지 7400만원 지원 받는다

출산·보육패키지 '아이키움 ALL IN 광주 7400+' 정책 추진
경제·의료·돌봄·일 생활 4대 케어 지원...출산을 높일지 관심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 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 등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현금성 케어 정책인 '광주 7400(만원)+'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74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소득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크게 다가오는 현금성·메디컬·돌봄·일생활 케어 등 '가족지원 4대 케어'다.

양육초기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 케어'는 광주 출생아의 경우 17세까지 1인당 지난해 출생아 대비 820여만원이 늘어난 최대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세에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 총 1520만원을 받는다. 이어 1세는 부모급여(600만원)와 아동수당(120만원) 등 720만원을, 2~7세는 아동수당 720만원 등 0~7세까지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2420만원) 기준 540만원이나 증가한 지원액이다.

여기에 17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을 더하면 모두 15종, 7400만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추후 국가 정책 변화와 재정 여건에 따라 현금성 지원액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등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을 시행하며, 출생아 가정에는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생생카드'를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2월 1일 시작...하반기부터 마약검사 실시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병무청이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

광주시는 현금성 케어에 이어 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도 선보인다. 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 지원사업도 첫선을 보인다. 광주시는 일단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전액 시비(3억원)를 들여 100명에게 개인당 최대 30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오는 3~4월께 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광주시는 이어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를 목표로 '돌봄 케어' 정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올해부터 '손자녀돌봄비'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도 신규 도입한다. 여기에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하고,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시는 '일생활 케어' 정책으로는 보육 돌봄인프라 확충과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광주 대표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인 'AI7만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모체감도가 높은 출생·보육정책에 집중 투자해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과일 할인판매 30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농협 광주유통센터 과일 판매대 앞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굴 10개 소매가격은 5379원으로 평년 2995원 보다 80%가량 비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협은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사과와 배를 최대 47% 할인해 판매하고 한우, 한돈, 계란 등 축산물을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국토부, 착수요건 대폭 완화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지금은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축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에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 (관리지역·재정비축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제재, 한국 플랫폼법 반대

"경쟁 깎고 무역합의 위반"

미국 제재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7월부터 간판·메뉴에 '마약' 못쓴다 ▶7면
-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 호주로 출발 ▶18면
- 도심 속 '리틀 아시아' ACC ▶22면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8건 중대
- 국내 수입차 체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Mercedes-Benz Certified